

순창 남계지구 새뜰마을사업 빛났다

도내 15개 사업지 대상 추진실적평가서 유일하게 ‘상’ 등급 받아

순창군 남계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5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상’ 등급을 받으며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도내 도시 새뜰마을사업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체계, 주민 참여도, 계획 타당성, 물리적 성과,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남계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순창을 남계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 마을안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비위생적인 자방을 개량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마을 곳곳에 분포해 있던 낡고 위험한 담장을 정비하고, 마을 진입로와 주요 통행 공간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 불편을 해소했다.



순창군 남계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5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상' 등급을 받으며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또한, 그동안 방치되었던 안전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원터도 조성해 공동체 중심 공간을 복원했다.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선진지 견학, 마을 리더 육성 등 지역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다지는 활동들도 병행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성과는 행정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역 주민 여러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향후에도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 등급 평가는 2025년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다며, 이는 순창군이 향후 다양한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단지 사업 추진 박차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받아

남원시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

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등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의 6개 주요 사업 중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2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부터 추진 중이며,

이는 부지면적 18.9ha 및 10.2ha 규모 의 온실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전문 생산법인 유치 및 재배기술 집약화를 위한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의 원활한 부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부지조성 계획 △기반시설 계획 △단지이용 및 매각활성화 계획 △연계사업 조성계획 등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스마트팜 선도농가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남원명품농업대학 스마트팜 특별반 교육생들이 실제 농업현장에서 실습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농가를 선발해 실습·견학처로 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집 대상은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작물의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중인 농가로, 청년 교육생을 위한 실습 및 멘토링 제공이 가능한 농업 경영체이며, 신청을 원하

는 농업인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남원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술센터는 총 5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농가는 현장멘토링 활동비 일부지원, 스마트팜 특별반 교육생과 의 연계 실습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 현장교수 위촉장 부여 등 3개 분야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를 찾아가 지역 핵심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올인

남원시, 중앙부처 방문해 핵심사업 지원 요청

남원시가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에 연이어 중앙부처 방문에 나서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도 국가 예산은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편성해 오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들이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를 직접 찾아가 다시 한번 지역 핵심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일제 출장과 4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상황 보고회'에 이은 연장선으로, 남원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원시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

한 출장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기획재정부 방문에서는 △남원 경찰수원원 신축(443억원) 등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DFL) 운영 시스템 구축(43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남원시 안순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장에서도 지역의 핵심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부처 담당자들을 설득해 먼저 부처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언제든, 어디나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발효 교육과정 ‘호평’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발효 관련 교육과정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민이 순창의 전통 발효식품을 직접 체험하며, 관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발효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발효식초 △소스 제조 △순창전통장류제조사 민간자격 과정 등 다양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통주 제조 과정'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론에서는 전통주의 원료, 발효 원리 등을 다루며, 실습에서는 수강생이 직접 술을 담그고 시음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배운다. 완성된 전통주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품평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펼쳐

임실군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 현재까지 시장 일대 및 경로당, 종합복지관 등에서 790명의 군민에게 △치매사업 안내 △치매 조기 검진 홍보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바로 알기 교육 △홍보 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다.

또한, 매년 노인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을 찾아가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치매 예방홍보를 펼치며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치매는 치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치매를 바로 알고,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경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고혈압 예방 캠페인 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5월을 '혈압 측정의 달'로 정하고, 재래시장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고혈압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과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과 혈압 관리 교육을 통해 고혈압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온기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며, 방치할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고혈압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